

‘섬진강 따라 벚꽃 가득’...구례 300리 벚꽃길 축제 막 오른다

22일부터 사흘간 서시천체육공원·문척면 일원서 EDM 공연·벚꽃길 걷기·노래왕 선발 등 행사 다채

2024 구례 300리 벚꽃축제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시천체육공원·문척면 일원에서 열린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긴 '300리 벚꽃길'에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지난해 보다 더욱 알차고 풍성하다. 올해 축제는 높이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포토존과 객석 디자인을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힐링 공간을 구성, LED 영상을 활용한 연출을 통해 관광객이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격조 있는 개막 행사는 최대한 줄이고 의미 있는 문화 행사를 확대 편성한다. 벚꽃 음악회의 초대 가수인 거미, 케이시, 김주리 등 출연진은 고향사랑 기

부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대성 가사는 천연기념물 제38호 화엄사 울벚나무의 역사와 구례의 역사를 주제로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300리 벚꽃길 걷기, 벚꽃과 함께 찍은 사진을 현장에서 자랑하고 선물도 받는 벚꽃 사진 콘테스트, 벚꽃 명소 3개소에서 이어지는 버스킹 공연,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퍼포먼스 등도 펼쳐진다.

유명 트로트 가수 박군과 나태주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일반인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해 대군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최고의 노래왕이 선발된다.

문척면 일원에서는 잔수농악, 관광객 참여 레크리에이션, 벚꽃 노래자랑, 지역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오봉정사와 월평교 사이에는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된다.

축제 기간에 KBS 전국노래자랑 촬영도 진행된다. 예시는 이달 24일 오후 1시 섬진아트홀에서 진행되며, 공개 녹화는 이달 28일 오후 1시 광의면 천은사 특별무대에서 한다. 예심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활달리는 꽃잎만큼 풍성한 300리 벚꽃축제에서 소중한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 섬진강 벚꽃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돼 섬진강 주변의 식당에서는 은어회와 은어 구이를 맛볼 수 있으며, 함께의 시원한 맛을 곁들인 민물 매운탕은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구례 300리 벚꽃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돼 벚꽃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구례군 제공>

고흥 미역부산물, 600만달러 日수출 협약

3년간 일본(주)롭슨에 미역부산물(뿌리·줄기) 수출

고흥군이 일본 도쿄에서 (주)롭슨 고흥 미역부산물(뿌리·줄기 등) 600만달러 수출 협약(MOU)을 체결해 해외 시장 판로를 개척했다. <사진>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일본 시장 수출개척단'이 최근 일본 도쿄에서 미역부산물 600만달러 일본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 협약은 향후 3년간 600만달러의 미역부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고흥군, 고흥군수협, 일본 (주)롭슨 3자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주)롭슨은 일본 도쿄에 소재를 둔 중간 식품 원료·가공 수입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은 약 300억원이며, 고흥 미역부산물을 수입해 친환경 도시락 용기 제작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미역 채취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미역부산물을 그동안 고흥군에서 가공 업체 식품 원료, 전복 치패사료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이



고흥군과 (주)롭슨이 고흥 미역부산물 600만달러 일본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흥=최봉환 기자>

번 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협약이 미역 양식 어가들의 새로운 부가 가치 창출로 어민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흥군은 농수산물을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소득 자원을 만들어 신규 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이 완료됐으며, 시의회 민간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어린이집을 공모·선정해 하반기에 광양읍과 중마동에 각 1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운영난으로 휴·폐지 어린이집 축소 등 기타 보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규 인가·정원 증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로 4개소를 확충하고, 시 보육 수요충족률과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등을 감안해 무상·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전면 제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운영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광양시 보육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양시 '보육 감동도시' 조성 789억 투입

보육정책추진 24시간 돌봄어린이집 등 신규 사업 의결

광양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 감동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789억원의 보육사업 예산으로 투입한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제1회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성과보고와 2024년도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주요 성과는 공공보육 이용률 50% 조기 달성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했고, 반정원 조정사업을 통해 영아를 밀착 보육, 보육 교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추가 지원으로 조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2024년 보육사업 예산은 총 789억원으로 18개 국도비 사업에 543억원, 17개 도비사업에 156억원, 18개 시 자체사업에 90억 원을 편성,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아이를 맡고 맡길 수 있는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간을 가졌다.

장흥군은 올해 3분기 이전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군 관리계획과 공유 재산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신진지 답사, 전문가 자문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해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장흥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사업 '속도'

관련 7개 부서 태스크포스 회의서 추진 사항 공유

장흥군은 "최근 부서 합동으로 천관산 도립공원 허그벨트 조성사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흥군은 지난해 8월1일 전남도와 체결한 '천관산 도립공원 허그벨트 조성' 협약의 후속 행정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회의는 이천영 부군수 주재로 관련 7개 부서 부서장·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천관산 도립공원 발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발표와 각 부서 간 의견 교환, 협조 사항에 대해 공유

장흥군은 11일 "이달부터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센터'는 전문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 전문인력팀이 취약주민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불면 우울증 검사 등을 시행하고 향기를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두뇌 분석(음니핏 브레인)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와 두뇌 건강 정도를 측정하고,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 회복을 돕는다. /장흥=김문태 기자

장성군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센터' 취약가구 방문 우울증 검사 등 실시

장성군은 11일 "이달부터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센터'는 전문의,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신보건 전문인력팀이 취약주민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불면 우울증 검사 등을 시행하고 향기를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두뇌 분석(음니핏 브레인)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와 두뇌 건강 정도를 측정하고,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 회복을 돕는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시,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 추진

종이팩·폐건전지·캔종량제→봉투·화장지·포인트로 교환

순천시는 11일 "폐자원의 수거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종이팩, 폐건전지, 캔, 투명 페트병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재활용도움센터 등으로 가져다 주면 종량제봉투, 화장지, 포인트 등으로 보상·교환 받을 수 있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들어져 재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이며, 폐건전지는 종량제 봉투에 섞어 배출 될 경우 쓰레기 선별과정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중금속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위험도 높다.

보상교환을 원하는 시민은 종이팩 또는 폐건전지 1kg을 가져다주면 20L 종량제봉투 1장 또는 화장지 1롤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교환처는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천시 재활용도움센터(백연길 11), 순천업사이클센터 더새움(팔마길 9-19), 순천시 청소자원과(이수로 13)이다.

또한 캔과 투명 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해 AI 자동 수거기를 통해 배출할 경우 개당 1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2천포인트 이상 모일 경우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캔·페트병 AI 자동 수거기는 재활용도움센터 등 17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시는 올해 15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 농작물 피해 지원방안 정부에 건의

일조량 감소로 딸기·토마토 출하율 최대 38.2% ↓

담양군은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원예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해보험 지원을 촉구했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딸기의 출하량을 조사한 결과 2월 출하율이 36.8% 감소했으며 토마토 출하율도 38.2% 감소해 농산물 수확량 감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상청에 따르면 담양군의 일조시간은 115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3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강수량은 111mm로 전국 평균보다 74mm 많았다.

김남승 축산원예과장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해 원예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지역 농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지원 제도 마련, 농업재해보험 보상 등 농가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병노(사진)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유례 없는 농작물 피해를 겪어왔으나 지원 제도가 적절치 않아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수확량 감소의 주된 요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 장애·착과 불량, 기형과, 병해충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딸기 농가의 경우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기형과, 잿빛 곰팡이병까지 확산하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이상 기후로 인한 각종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이 없어 농가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제1회 보성 예술인의 날' 성료

올해 첫 개최...지역 예술인 화합 한마당

11일 보성군에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 교육관에서 (사)한국예총 보성지회(지회장 서정미)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는 보성지역 예술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2024년 제1회 보성 예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4년 제1회 보성 예술인의 날' 행사는 지역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성의 문화 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한국예총 보성지회 산하 3개 지부(문인·미술·연예예술인)와 9개 특별단체(푸르미예술단·보성소리마당·보성소리보존회 등)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풍성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 낭송, 퓨전국악, 명창 공연 등 예술인들의 활동을 자축하는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박춘

맹 보성군립국악단 예술감독, 김용국(사)한국예총 보성지회 고문, 한미숙 미술협회 보성군지부 부지부장 등 지역 예술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철우 군수는 "예향의 고장 보성답게 지역의 문화 예술 저변 확대에 힘쓰는 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화환 대신 받은 쌀은 관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복지관에 기증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